



패키지 디자인의 튀는 멋

Smart of Package Design

근래에 패키지 디자인의 경향을 보면,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튀는 인상을 받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튀어야만 살아남는다'라고도 외친다. '튀다'라는 말은 그것 주변의 제반요소들과는 뭔가가 다르게, 그의 인상이 강하게 상대방에게 호소할 때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튀는 것들이 도처에서 패키지 디자인을 비롯해, 도시의 건물과 건물을 도배하다시피 한 간판에서, 자동차에서, 사람들 옷차림에서, 크고 작은 각종 시각 표지물과 인쇄물 등까지 모든 것들이 서로들 튀고 있다. 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노라면 TV의 광고물들이 튀고, 프로그램 자체가 튀고 또 젊은이들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튀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튀다 보니 이른바 상생(相生)이 안되고 상살(相殺)이 되어 우리의 감각기관과 인식의 틀을 피곤하게 자극하면서 혼돈과 무질서로 범벅이 되어 우리를 압박하여 온다.

세상이 이러하니 가만히 있던 사람도 뭔가 '튀어야 할 것' 같은 착각과 강박관념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온통 세상이 튀고 있어 안정감있고 정리된 느낌은 없어지고 숨돌릴 틈이 없는 각박한 사회가 되는가 보다.

하기야 패키지 디자인은 자본주의의 속성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튀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작용을 하는 튀기 전쟁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또 앞뒤 생각도 없이 무작정 그렇게 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 앞날을 위해 온당한 것인지가 필자로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게 다가온다.

'튀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남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



민 경 우

(사)한국산업디자인협회 회장

는 것일진대, 개성의 참의미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이 어떤 당위성을 갖고 주변요소들을 해하지 않으면서 그 고유한 가치를 발휘할 때, 그것은 멋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순수한 말인 '멋'이라는 단어는, '맛'이라는 말과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맛은 단번에 느껴지는 얹고 자극적인 맛도 있겠지만, 오랜 동안 발효되고 숙성되어 나오는 깊은 맛으로서 우리의 전래 음식과 같이 각기 다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각각의 개별적인 맛이 각기 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서로 상생하여 또 다른 제3의 맛을 함께 만들어 낼 때 깊고 그윽한 맛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사이 우리 주변의 튀는 멋(?)을 얹고 천박하고 깊이가 없는, 멋과 맛의 잘못된 이해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아울러 그의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로, 근래에 디자인되고 생산된 우리 주변의 갖가지 포장지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생명력 짧은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생활용구들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도 결코 싫증나지 않고 무던하게 느껴지면서 친근하게 다가와 우리와 서로 교감(interaction)할 수 있었는데 반해, 요사이 디자인 된 생활용구들은 처음에는 반짝이고 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용한 후 얼마 안되어 곧 싫증나고 천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것은 마치 질게 화장한 여성이 처음에는 잠깐 매력적으로 보이다가 곧 싫증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대체로 보면 사람 중에 미인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도 결코 싫증나지 않고 두고두고 보아도 물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한다.

마치 깊은 산 속의 샘물이 자극적인 맛을 갖고 있는 청량음료와 다르듯이, 참 맛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지만 일단 관계를 맺으면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외국의 디자이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의 하나는, 왜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은 거의가 젊은이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놀란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상물을 창조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주체인 디자이너는 최소한 자기가 만드는 물건에 대해 이런저런 깊은 사유와 함께, 오랫동안 축적되고 녹아들은 삶의 지혜와 경험이 손끝을 통하여 발현되는 것이라야 생명감있고 참으로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는 그네들이라면, 젊은이들의 툭툭 튀는 디자인만으로 가득 찬 우리주변의 환경은 혼돈스러워 보일 것이고, 얹고 경박한 문화로밖에 안보일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패키지 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패키지 디자인 분야도 툭툭 튀는 자극적인 맛도 필요하지만, 깊게 사유하여 얻어지는 결과들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는 격조와 품위를 우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ㄱ